

기도의 지경을 넓혀 봅시다!!

- 정한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마주 앉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긴장감을 주었던 올 여름도 그림자처럼 빠르게 지나갔네요. 풍성한 가을을 맞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 장보기가 만만치 않은 요즈음입니다. 지난 여름 8월에도, 산청에 사는 친구가 방을 내주어 더위를 피해 3주간 그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자연도 좋고 물도 또한 좋은 곳이라 저희에게는 큰 호강이었지요.

무엇보다 집들이 띄엄띄엄 있으니 마음껏 기도하기가 부담이 없었습니다. 쏟아 내어도 쏟아 내어도 계속 올라오는 아픔! 저들의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제 가슴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들은 아픔에 감각을 잃었을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엄연한 사실도 모르니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살아 계신 아버지 앞에 나가 저들을 위해 호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들의 몫일 것 입니다.

이곳에서의 저희의 삶은 무척 단순합니다. 새벽예배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기도할 때 마다 새로이 살리시는 성령님의 도구 되어 그 아픔을 토해 내실 수 있게 찢어질 듯한 가슴과 울음보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저 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우연히 배운 커피 볶는 것을 잘 활용하여 생두를 사다가 볶아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커피 만드는 실력을 쌓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일을 헛되이 하게 하시 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의 커피 맛을 내야 한다면 한번 할 때 마다 볶는 시간과 온도, 날씨 등등 모든 걸 기록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남편의 그 로그북을 보면 감탄치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볶은 커피를 주변에 나누면 생두가 들어오고, 남편의 커피통을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기름그릇이 떠오릅니다. (참고로 남편이 가진 커피볶는 기계는 maximum 130 그램을 볶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가정용기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곳의 소식은 뉴스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것 들입니다. 그나마 소식을 전해주던 중국인 마저도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학교는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학교 운영을 위해 맡은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요원한 형편이지요. 그래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몇 달 전, 저희와 친밀히 지내던 Y 시에 나와 유학하고 있는 두 명의 학생들이 코로나로

본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유학생활동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의 생활비를 서울의 후원 ㄱ*에서 기꺼이 부담해 주시어 저희 마음의 짐을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저희들은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버지를 깊이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권능... 그리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성품들... 성실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자비로우심 등등...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 분의 자식인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 그 성품 안에서 아이처럼 자유로이 뛰놀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도 세상에 눌리고 또 믿음을 잃고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두운 이 시대, 사방이 막힌듯한 주어진 환경들을 드릴로 뚫듯이 선포하며 기도로서 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친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능력자이시며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많이 많이 묵상하며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사랑이 무한 풍성하신 아버지를 많이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서울을 방문하여 함께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ㄱ* ㄱ* ㄱ*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은 미국에서 ㄱ* ㄱ* ㄱ*로 헌신한 부부가 운영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함평이란 한반도 남도 끝에 ㄱ* ㄱ* ㄱ*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하게 하시어 그야말로 마음편히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놀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찬양 반주자 출신이시라 연 이틀 광광 울리는 유창한 반주에 맞추어 찬송가를 부르며 아주아주 즐겁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집 마당 안 산언덕 꼭대기에 올라 부르짖어 기도도 하면서요. 마침 장날이라 시장에서 맛난 팔갈국수도 사 먹고 서울과 비교도 안 되게 값싸고 싱싱한 목포산 먹갈치를 사서 집으로 가져와 무우와 양파를 넣고 자작자작 풍성히 조려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모처럼 그 곳의 진돗개 산보도 시키며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을 지켜보며 또한 모인 우리들에게 향내 나는 신선한 커피를 타주면서 무진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나 아마도 저희들이 ㄱ* ㄱ*일에서 retire 하게 되면 아마도 남편은 당장에 시골로 내려가 진돗개를 기를 것이고 또한 자연농법으로 좋은 먹이를 먹여 닭들을 기르면서 저희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터질 것 같지 않을 똥그란, 노른자의 싱싱한 달걀을 매일 아침 2 개씩 제공할 것입니다 !! 물론 은은한 향기 그윽한 신선한 커피는 당근이고요!!! 더 놀라운 News 는 이 모든 것이 FREE 가 될 거라는 사실!!!

지난 9 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분당의 집세가 실제로 많이 올라 부담이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지인을 통해 오른 금액의 2 년치를 해결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져 큰 위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로 뱃심이 든든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전에는 미국 아틀랜타에 계시는, 전에 함께 롤 BH 를 다니시던 권사님이 우리들을 위해 1년전부터 함께 중보기도하시는 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땐 정말로 마음이 녹아 내리는 듯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으쌰으쌰 밀며 응원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직통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미국 방문길에는 아틀랜타에 가서 그 분들을 꼭 뵙려고 합니다.

저희는 12 월 초순경에 서울을 떠나 캘리포니아를 갈 예정인데 하루 정도 묵은 후 바로 아틀랜타를 갔다가 10 일 경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려합니다. 저희가 올해로 만 65 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해서 미국에 10 월에 가야했으나 큰 딸 윤선이가 12 월 20 일 경에 둘째를 낳게 되어 일정을 늦춘 것입니다. 올 4 월 초,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친정엄마인 저에게 전할 때 반갑게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게 보통 엄마의 반응일텐데 저는 당장 윤선이가 힘들어질 생각에 놀란 얼굴을 하니 도리어 윤선이가 미안해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너무 미안합니다.

결에서 돌보아주는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없이 달랑 자기들끼리 직장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미국에서 너무나 힘든 일임을 알기에 그 마음이 불쑥 올라와 그랬는데 암튼 이번 겨울에도 어떤 것으로도 행여 아이들 마음 서운케 하는 일 없도록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마땅한 일들은 당연히 많겠으나 잠시 만나 지내면서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BH 와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는 정말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땅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직 기도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기도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온 지구가 정말로 기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처한 참상을 비롯하여 온 세계 퍼져 있는 난민들, 또한 기후 문제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심지어 바다 속 산소부족으로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해 쓸려 오고...

돌아보아 어느 한구석 기도 없이 살 수 없으니 우리는 당장 어찌어찌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기 쉬운 우리 아이들은 어찌 살아갈 지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남의 기도는 애초부터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주변의 모든 일들이 바로 당장 내 일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세상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고 육신에도 힘을 넉넉히 주시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말세를 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직 기도하며 주어진 우리들의 세월을 알뜰히 살아가십시다!! 서로 돌아보며 나누며 보듬으며 저 멀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공포속에 떨고 있는 한 아이도 알고 보면 바로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서 그들의 절박한 삶을 함께 살아 주십시다! 또한 공포 묶여 있는 BH 땅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 엄마요 오빠요, 언니요, 우리들의 아들딸들이니 기도로서 그들의 먹먹한 가슴을 살려내며 생명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크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오직 이유는 당신의 아픈 자식들 함께 살려내자는 오직 그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늘 깨어 사십시다!!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케 해드리며 은혜로 주어진 우리들의 이 생을 잘 살아내고 돌아가십시다!

여러분께 자주 연락을 못 드리더라도 언제든지 손쉬운 카톡을 통해 서로 연락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